

코로나시대 예능의 변신... '맛남' → '폐업요정' 선한 영향력

지역 특산물·소상공인 살리기 취지

“사회적 가치 실현, 시청자들 공감”

‘전북 4200박스 완판’ 최근 전남 완도의 전복 어가 돌기에 나선 SBS 예능 ‘맛남의 광장’은 라이브 쇼핑으로 전북 4200박스를 판매했다.

이 같은 사례를 비롯해 최근 방송사들은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활용한 예능 프로그램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언택트 문화가 활발하게 형성되면서 그 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표주자는 ‘맛남의 광장’이다. 지역 특산물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소비를 촉구하는 ‘맛남의 광장’은 지난해 8월 통영의 고구마 순을 시작으로 지역 특산물 판매 창구로 라이브 커머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방송 초반에는 백종원이 이마트, 오투기 등 친분 있는 기업 대표들에게 특산물 판매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하면서 현재는 프로그램에 안착한 상태다.

첫 라이브 쇼핑에서 고구마 순 200박스를 판매했고, 이후 양평 콩나물 300박스, 보성 쪽파 1000박스, 제주 참조기 2000박스, 마산 생홍합살 4000박스 등 줄줄이 완판에 성공했다.

다른 방송사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MBC는 라이브 커머스를 결합한 포맷으로 소상공인 돌기에 나섰다.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로 기획된 ‘심폐소생 프로젝트-폐업요정’이다.

6명의 연예인은 팀을 나눠 심폐소생이 필요한 점포를 찾아 상품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첫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는 반팔 티셔츠와 피크닉 가방 완판에 성공했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수제화와 레깅스 판매에 나섰다. ‘폐업요정’은 2회로 편성됐으며, 지난 5일에 이어 오는 19일 방송된다.

KBS와 채널A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지역 살리기에 나섰다.

KBS는 지난해 파일럿으로 선보인 ‘보는 날이 장남-랜선장터’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 오는 6월부터 방송할 예정이다. ‘랜선장터’는 우수한 농수산물을 소개하고 라이브 커머스로 소비자와 연결해 판매를 도와주는 예능이다. 두 지역 간 자존심을 건 대표 특산물 판매 대결을 진행하며, 코로나19로 활기를 잃은 농촌 지역의 부흥에 나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채널A는 ‘산지직송 프로젝트, 무작정 커머스’를 상반기에 방송할 예정이다. ‘무작정 커머스’는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한 지역 상품을 선정하고, MC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해 상품 판매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를 도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모두 선한 영향력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상품 판매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착한’ 예능을 표방하고 있

다. 특정 업체를 위한 이익 창출이 아닌 상생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도 호응하고 있다. 여기에 예능이라는 포맷으로 재미를 더하며 시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다양한 출연진을 비롯해 메뉴 개발, 판매 대결 등 방식으로 볼거리를 더해 시청률과 공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요즘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능의 경우 시청자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며 “방송에서 유명인

이 직접 지역 특산물 등을 판매하면 믿을 수 있는 직거래라고 생각하게 되고,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선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도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좋은 상품이고, 일종의 명분과 스토리가 있을 때 공감을 얻게 된다”며 “사기업 이익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시청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데, 일종의 절충점으로 사회적인 가치 실현을 커머스와 결합한 형태로 선보이면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MBC ‘놀면 뭐하니?’, 4주 연속 토요일 화제성 1위

MSG위너비 결성을 진행 중인 MBC ‘놀면 뭐하니?’가 4주 연속 토요일 비드라마 TV화제성 1위다.

11일 TV화제성 분석 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놀면 뭐하니?’는 5월 1주 토요일 비드라마 부문에서 2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놀면 뭐하니?’는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가구 20세부터 49세까지 시청률 7.9%로 5월 1주 전체 프로그램 중 1위에 올랐다.

오는 15일 방송에서는 톱8의 ‘상상더하기’ 무대와 최종 경연 준비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방송 중이거나 방송 예정인 비드라마 172편을 대상으로 뉴스 기사, 블로그·커뮤니티, 동영상, SNS에서 발생한 네티즌 반응을 분석해 지난 10일 발표한 결과다.

뉴스스

이경규·이승기·이승엽, 新예능 ‘편 먹고 공치리’

오는 7월 첫 방송

SBS와 OTT 서비스 웨이브가 함께 하는 신규 골프 예능프로그램 ‘골프 혈전 편 먹고 072(공치리)’(이하 ‘편 먹고 공치리’)가 베일을 벗었다.

연예계에서 이름난 골프광 이경규, 이승기, 이승엽이 뭉친다는 사실로 화제가 된 ‘편 먹고 공치리’는 세 명의 MC가 각각 편을 먹고 삼파(par)전 골프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제목 속 ‘공치리’는 ‘공을 친다’는 뜻과 함께, 아마추어에게 꿈의 스코어인 72타를 달성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예계 골프의 선두주자 이경규는 구력 30년 차의 저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최초의 골프 예능(골프의 신)으로 골프 붐을 일으켰던 그가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신이라 불릴 만만치, 현재 그의 실력은 베일에 싸여 있다.

또한, 노래, 연기, 예능 율킬 못하는 게 없는 영골퍼 이승기의 실력도 관심을 끌고 있다. 2

년 차 짧은 구력에도, 뛰어난 실력으로 연예계 대표 골퍼로 급성장 중이다. 작년 1월 SBS ‘집사부일체’에서 만난 골프여제 박세리에게 ‘프로선수도 가능할 스윙’이라고 인정받은 바 있다.

이어서 국민타자 이승엽은 예능 프로그램 첫 고정 출연으로 숨겨진 골프 실력을 선보인다. 야구 은퇴 당시, “이제 마음껏 골프를 치고 싶다”고 고백할 정도로 골프를 좋아한다는 이승엽은 시원한 윈슨 스윙으로 정교한 타격과 장타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첫 촬영을 앞둔 세 사람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이경규는 “누구와 편을 먹어도 자신 있다”며 이기기 위한 특훈에 돌입했고, 이승기 또한 바쁜 일정을 쫓아 골프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이승엽은 제작진 미팅 당시 “(이경규를) 직접 만나서 대결하기 전이지만 골프의 신으로 여기겠다”라고 밝혀 불꽃 튀기는 자존심 대결을 예고했다.

‘편 먹고 공치리’는 7월 초 방송 예정이다. 뉴스스

‘여자플러스4’, 김성령·박효주·장영란·김민정·조이현 MC 발탁

오는 27일 오후 11시 첫 방송

SBS Fil ‘여자플러스4’가 ‘평생동안-여자플러스4’로 돌아온다.

‘평생동안-여자플러스4’가 배우 김성령과 박효주, 방송인 장영란, 김민정, 라이프 쇼퍼 조이현까지 MC 군단의 라인업을 공개했다.

‘여자플러스4’는 젊은 층은 물론 30~40대 여성까지 즐길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쇼 프로그램이다. 2017년 시즌 1이 방송된 이후 꾸준한 사랑 받아왔다.

이번 ‘평생동안-여자플러스4’는 ‘평생 동안’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외모뿐만 아니라 마인드, 라이프스타일까지 진정한 ‘동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배우 김성령은 우아한 배우와 친근한 옆집 언니를 오가며 생활 속에 숨겨진 고퀄리티 평생동안 레시피를 공개하는 등 ‘언니어답터’들의 멘토로 활약할 예정이다.

김성령 멘토의 수제자이자 라이프 스타일 동반자인 연기파 배우 박효주는 보디 메이커로 20년 동안 변치 않은 라인의 비법을 공개한다.

친근한 이미지로 데뷔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방송인 장영란은 저 세상 솔직함과 깡감함으로 평생 동안 인생템을 발굴해 줄 프로리뷰어의 면모를 보여준다.

아나운서 출신 뇌섹녀 김민정은 언니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잡기 위해 푹 소리 나는 스타일캐논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쇼퍼 조이현은 언니어답터의 막내로 평생동안 언니들도 몰랐던 초 신상 핫템, 잇템들을 소개한다.

‘평생동안-여자플러스4’는 언니어답터가 된 MC 김성령, 박효주, 장영란, 김민정, 조이현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언니들을 위해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담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27일 오후 11시 첫 방송한다. 이튿날



오후 8시 SBS MTV에서도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 ‘빌보드뮤직어워즈’서 신곡 ‘버터’ 첫 공개

시상식은 23일 오후 8시부터 미국 NBC 방송에서 생중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1 빌보드 뮤

직 어워즈(BBMs)에서 새 디지털 싱글 ‘버터(Butter)’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주최 측은 11일(현지시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오는 23일 열리는 ‘2021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방탄소년단이 퍼포머로 참여한다면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4년 연속 퍼포머로 참여하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크 러브(FAKE LOVE)’ 무대를 최초로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2019년에는 미국 팝스타 할시(Halsey)와 함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무대를 꾸몄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배경으로 ‘다이너마이트(Dynamite)’ 무대를 선보였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발표된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 후보 명단에서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최다 부문 수상 후보 자체 신기록을 세웠다. ‘톱 듀오/그룹(TOP DUO/GROUP)’,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TOP SONG SALES ARTIST)’, ‘톱 소셜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 ‘톱 셀링 송(TOP SELLING SONG)’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는 방탄소년단 외에도 시상식 호스트인 조나스 브라더스(Jonas Brothers) 멤버 닉 조나스(Nick Jonas)를 포함해 핑크(P!nk), 위켄드(The Weeknd)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공연을 펼친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8시부터 미국 NBC 방송에서 생중계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1일 오후 1시(한국시간) ‘버터’를 세계에 공개한다.

있지, ‘빌보드 200’·‘아티스트 100’ 동시진입

JYP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걸그룹 ‘있지(ITZY)’가 미국 빌보드의 3대 메인 차트 중 두 개에 동시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12일 빌보드에 따르면, 있지가 지난달 30일 발매한 앨범 ‘게스 후’는 15일자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48위에 올랐다.

또 있지는 아티스트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또 다른 메인 차트 ‘아티스트 100’에서는 99위에 랭크됐다.

있지는 메인 차트 두 개를 포함해 빌보드 12개 부문에 이름을 올리고 호성적을

쏟아냈다. 앨범은 ‘히트시커스 앨범’ 1위, ‘월드 앨범’ 2위, ‘커런트 앨범 세일즈’ 20위, ‘앨범 세일즈’ 23위, ‘인디펜던트 앨범’ 25위를 차지했다.

타이틀곡 ‘미피아 인 더 모닝’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3위에 이어 전 세계 200여 개 이상 지역의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다운로드)을 집계해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와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각각 22위와 34위, ‘빌보드 캐나다인 핫 100’ 97위에 올랐다. 또한 있지는 ‘이머징 아티스트’ 랭킹 5위에 안착했다.